

# 화학섬유, 중국 독주 계속된다!

## 2003년 생산량 1000만톤 돌파 ... 중국 생산설비 집중 가속화

중국의 화학섬유 생산량이 1000만톤 선을 돌파해 세계적인 침체 속에서도 중국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.

일본화학섬유협회가 발표한 <세계 화학섬유 생산동향>에 따르면, 2003년 중국의 화학섬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17.4% 증가한 1126만9000톤을 기록했고, 중국의 세계 생산점유율도 4.7%p 상승한 36.6%에 달했다.

합성섬유는 일본, 한국, 타이완, ASEAN, 미국, 서유럽의 생산점유율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중국의 생산 집중현상이 심화됐다.

1993년 220만톤에 불과했던 중국의 화학섬유 생산량은 최근 10년 동안 약 5배 증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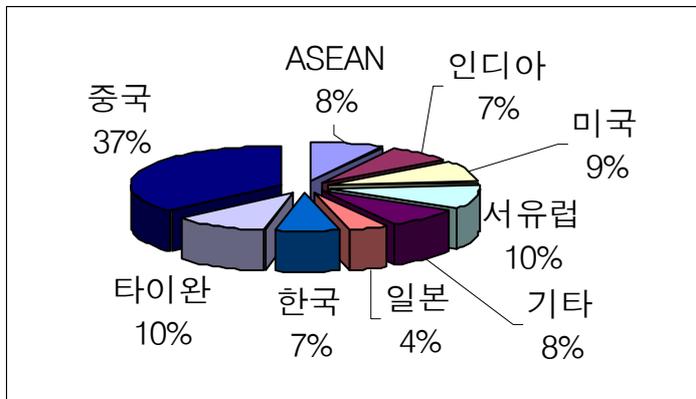
중국의 2003년 합성섬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17.2% 증가한 1040만톤으로 처음으로 1000만톤을 돌파했다. Polyester 장·단섬유를 비롯해 나일론 장·단섬유, 아크릴 단섬유 모두 플러스 증가세를 기록했다.

특히, Polyester 장섬유는 세계 생산량의 44%, 단섬유는 38%를 중국이 차지했다.

중국의 독주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내수침체 및 수출경쟁력 저하로 화학섬유 사업에서 철수하는 메이커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사업철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.

한국이나 타이완도 최근 내수가 크게 침체돼 중국의 지역적 이점을 활용한 수출강화 및 현지생산 확대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돼 중국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

### 세계 화학섬유 생산비중 비교(2003)



한편, 인디아의 2003년 화학섬유 생산량은 209만톤으로 200만톤 선을 처음 돌파했다. 중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세계 생산점유율도 0.2%p 상승한 6.8%에 달했다.

인디아 화학섬유산업은 생산규모는 아직 작으나 세계시장으로 꾸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5/14>